

네팔 궁금한 이야기

네팔의 최대 명절, 다사인(Dashain)

10월은 네팔의 최대 명절 다사인이 있는 달입니다. 다사인은 네팔의 여신 '두르가'가 악마를 물리치고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로 10일 동안 지속되는 최대 규모의 가을 축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네팔에서는 고향을 방문하여 염소고기를 먹는데, 가족과 함께 송편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우리의 추석과 참 비슷합니다.

네팔에는 다사인과 관련된 재미있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다사인 기간에 미래의 삶을 축복하는 의미로 아동의 이마에 붉은 색 점을 찍어주곤 합니다. '티카'라고 불리는 이 관습은 힌두교 종교의식으로 신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다사인의 마지막 날을 '코자그라타'라고 하는데 '깨어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네팔 사람들은 이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신이 재물과 풍요를 내려준다고 믿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연 날리기, 그네뛰기, 카드놀이 등을 즐기며 밤을 지새웁니다.

일상의 걱정을 잊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다사인은 네팔 사람들에게 명절 이상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내전 중에도 다사인 기간만큼은 서로가 휴전을 발표하고 평화를 유지할 정도입니다. 네팔 사람들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네팔 사업장의 아동들 모두 다사인 기간에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가오는 12월 겨울방학에도 소중한 추억을 가득 안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NEPALBUSINESSNEWS

네팔 사업장 소식

여섯 번째 이야기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과정을 거쳐 2017년 1, 5, 9월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날에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개별상담

네팔 사업장의 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한 명 한 명과의 만남을 통해 아동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개선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업체험 활동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3월, 80명의 아동과 네팔 내 밀알 작업장을 견학했습니다. 바늘과 실, 천을 이용한 재봉체험과 직접 빵을 만들어보는 제빵체험으로 구성된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재봉사와 제빵사라는 직업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 접할 수 없는 경험이기에 아동들 모두 눈을 반짝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다양한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프

올해 7월, 춘데비스 사업장을 방문한 대구대학교 봉사단원들과 함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아동들은 봉사단원들에게 한국의 민속 놀이와 동요를 배우고, 장애인 친구와 함께 체육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아동들에게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캠프에서 배운 다양한 활동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방학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미술 수업

네팔의 정규교육 과정에는 예체능 수업이 포함되지 않아 아동들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특히 종이, 크레파스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한 미술 활동은 그 기회가 더욱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네팔의 전 사업장에서는 아동들이 그림 그리기, 모자이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적 감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 수업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이 우수한 아동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운동복, 학용품 지원

네팔의 아동들은 교복을 일상복처럼 입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편안한 운동복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아동들은 기존의 불편한 교복 대신 운동복을 입고 신나게 체육활동을 합니다. 더불어 분기별로 지급하던 학용품도 함께 전달하여 짝아진 연필과 다 쓴 공책이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아동들은 새로 받은 운동복과 학용품으로 기분 좋은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네팔에서 온 편지



네팔 아동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네팔 사업장에서 결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정근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좋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나마 우기에는 세찬 빗줄기가 거리의 먼지를 씻어주어 상황이 한층 나아지지만, 올해의 비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네팔 대지진 이후 불안정한 지반에 거센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파이고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이 혹여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네팔이 지진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동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회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팔 김정근 프로젝트 매니저 드림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학용품 지원

10월
공책, 연필, 필통 등 학용품 지원 예정



학부모 면담

12월
결연아동의 학부모와 면담 진행 예정



동복 지원

12월
겨울맞이 동복 지원 예정